

University Press, 1968.

Van Til, Henry R.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영음사, 1972.

Wallace, Ronard 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ndon: Oliver and Boyd, 1959.

_____.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57.

Wendel, Franc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s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lated by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 & Row, 1963.

누가研究와 '초기공교회'의 問題

이 상 규
(본 연구소 연구원)

서론(문제의 소재, 목적)

- I. 현대신약학에 있어서 누가 연구
 - II. 누가와 '초기공교회'의 문제
 - III. '초기공교회'의 신학적 문제
 - IV. '초기공교회' 비판
 - V. 결 론
- 참고문헌

서 론

(문제의 소재, 목적)

현대 진보적 신약학자들간의 가장 큰 爭點이 되고 있는 문제는 누가의 2부작인 「누가-행전」(Luke-Acts)¹⁾에 나타난 누가의 神學에 관한 토론이다.

이 토론은 195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문제를 안고 세계신학계에 등장했는데, 그것은 초대 기독교 共同體의 압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의 좌절로 인하여 발생한 제 현상에 대해 역사 과학적 해답을 시도하려는 소위 '초기 공교회' (Early Catholicism)²⁾에 관한 논쟁이다. 이 논쟁

1) 「누가, 행전」 저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지만 동일저자로 보는 견해가 절대적이다. 누가-행전 두책의 구조, 용어, 사상, 공동수신인들의 특징에 대해 철저히 논구한 책은 Henry J. Cadbury,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Macmillan, 1961)이다.

2) 'Early Catholicism'는 '초대공교회', '초기카토리시즘' 등으로 번역될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초기공교회'로 번역하였다.

은 지금까지 신실한 歷史家로 인정 되어온 누가를 神學者로 보는 새로운 누가像을 확립했으며, 누가는 당시의 압박하리라고 믿었던 종말이 이뤄지지 않자 “終末”을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세계 곧 역사세계속에 中性化시키고 신국을 歷史化하여 재림의 지연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누가는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은 초대교회의 파루시아 대망의 좌절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2부작인 「누가-행전」에서는 예수의 밋세지의 종말론적 성격을 구속사적 성격으로 대치시키고 종말론적 성격의 약화를 시도 하므로 神國을 역사화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의 재림은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 세계 속으로 후퇴하고, 교회는 성례전을 수반하여 제도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것이 누가 신학에 나타난 ‘초기공교회’ 사상이다. 그리하여 1960년대 이후 신약 신학자들의 관심은 누가의 2부작 연구에 집중되었고 ‘초기 공교회’ 문제는 최근의 논쟁의 중심과제가 되었다.

본 論文의 목적은 ‘초기 공교회’(Early Catholicism)에 대한 세계신학계의 토론과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개혁주의 신학적 비평을 가하는 데 있다. 필자의 처음 관심은 기독교 思想史의 관점에서 제 2세기 기독교의 종말 의식의 퇴조와 공교회의 형성에 영향을 준 역사-신학적인 제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있었으나 제 2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공교회’ 이전의 ‘초기 공교회’에 관한 신약학자들의 토론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 2세기 기독교를 논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초기 공교회’에 관해서는 한국에서는 아직 단 한편의 논문이나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글도 써여 지지 않았으며, 신약학의 최근동향을 소개하는 몇편의 논문³⁾에서도 이 문제는 언급 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전 5장으로 구성했는데, 제 1장에서는 현대 신약학에 있어서 누가연구의 동향을 소개했으며, 제 2장에서는 누가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3) 신약학의 최근동향을 소개하는 논문으로는 전경연, “신약학의 현황과문제”, 기독교사상 (1971. 3), 황성규, “신약학의 최근 연구 동향” 세계와 선교40(1975. 4), pp. 26-33. 김용욱, “신약학의 최근동향”, 신학사상 13집 (한국신학연구소 1976), pp. 219~240.

‘초기 공교회’에 관하여 H. 콘첼만과 E. 케제만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했으며, 제 3장에서는 초기공교회의 신학적 문제들을 論究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초기공교회’에 대한 두가지 기본적 질문에 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였고 제 5장 결론에서는 ‘초기공교회’의 이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교리의 발전과 신앙 형태를 단순히 歷史內 사건으로 파악하여 현상학적인 분석만으로 이론화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초기 공교회’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I. 현대신약학에 있어서 누가연구

1. 현대의 신약학계의 동향

현대의 진보적 신학자들의 신약학연구에 있어서 최근의 잇슈들은 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학적 문제,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연구, 공관복음서(특히 편지사 비판), 바울서신, 초대교회의 본질, 영지주의(靈知主義)와 신약과의 관계등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금세기에 있어서 신약학연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R. 블트만(Rudolf Bultmann, 1884—1975)의 유명한 논문 ‘신약성서와 신화론’(New Testament and Mythology)의 출현(1941)으로 볼 수 있다⁴⁾.

이 무렵은 세계 제 1차대전 후에 부각된 양식사 비판과 성서신학의 재등장으로 해서 케리규마가 신약학의 중심과제로 논구되었다. 말하자면 신약성서가 나사렛 예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행동의 선포라고 본 것이다. 블트만 역시 이상과 같은 케리규마이해에 동의 했으나 하나님의 행동이 이제 는 남아버린 유대묵시 문학과 헬렌니즘 영지주의(Gnosticism)의 신화속에서 유래한 언어로 선포된다는 것을 지적하므로써 非神

4) 1941년 처음 발표될 때 제목은 ‘offnbearung und Heilsgeschen’이 였으나 1948년 kerygma und Mythos에는 <Neus Testament und Mythologie>로 게재되었다. 이것은 1967년 유동식교수에 의해 성서의 실존론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대한 기독교사회에 의해 출간되었다.

話化(Entmythologisierung)작업의 불가피성을 제시한 이래 열던 논쟁이 계속되었다.

볼트만은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재해석(reinterpretation)을 시도하므로 신약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⁵⁾.

신약학 주변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관심을 끌고 또 문제성이 깊은 것은 아무래도 해석학 부분이 아닌가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해석학이 결코 현대주의 신학자들에게 해로운 학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석학의 문제를 크게 논의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아무래도 볼트만에게서 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해석학이란 어떤 기록된 문서가 최초의 독자들에게 명백히 이해된 것처럼 오늘날 새로운 상황 아래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메시지가 명백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학문적 기술을 의미한다. 이것은 볼트만이 실존주의 철학을 도입함으로써 신약성경을 해석 하고자 했던 비신화화의 시도였다.

1940년대의 볼트만의 '新約聖書와 神話論'으로 열던 논쟁을 해오던 신약성서 연구는 1953년에 새로운 전환기 곧 후기 볼트만 학파 (Post-Bultmann School)시대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케제만(E. Käsemann)이 역사적 예수의 문제'(Das problem des historischen Jesus)란 제목으로 강연하프로서(1953) 오랫동안 무시된 예수에 대한 관심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해석학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연구도 19세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 갈만큼 역사가 오래다. 역사적 예수에 관한 관심은 독일을 위시하여 활발히 논의 되었고 베일(S. Neil)이 말한 대로 유명한 신학자라면 거의가 이 문제에 대한 저술을 남겼다⁶⁾. 역사적 예수 문제에 관한 새 연

5) Reginald H. Fuller, *The New Testament in Current Study* (Charles Scribner's) 제 2장 참고.

6) S. Neil,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1861~1961*, (London, 1966) p. 272.

구의 초점은 역사적 예수와 케리규마의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 문제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 대로 볼트만은 역사적 예수의 탐색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다(both impossible and irrelevant)고 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연구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즉 케리규마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는 역사적 예수가 문제되는 것처럼 역사적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케리규마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에 이 양자의 연관성을 논구하는 것이 새 연구의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진정통주의 신학이 케리규마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고 역사적 예수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M. Kalher 이후 Bultmann은 역사적 예수 탐색의 불가능을 발견하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케리규마의 그리스도에 집중했었다)고 했으나 후기 볼트만 학파는 케리규마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케리규마의 객관적 근거로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Käsemann)⁷⁾ 있다. 역사적 예수가 논구되지 않으면 케리규마의 그리스도는 신화가 되고 말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⁸⁾. 역사적 예수의 새로운 탐색을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 가운데 한사람인 H. 콘젤만과 E. 케제만은 근자에 와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관심 보다는 기독교 사상사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케제만은 그의 저서 *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에서 그는 그

7) Post-Bultmann School의 대표적 학자로서 Käsemann, H. Conzelmann, G. Bornkamm, Fuchs, J. Robinson 등을 들수있다. 역사적 예수문제에 관한 H. Conzelmann, G. Ebeling 등의 논문은 한역되었다. 허혁편집, *성서와신학* 제 2권 (성서연구회 1970), 참조

G. Bornkamm의 *Jesus von Nazareth* (1956)도 한역되었다. 강찬로역, *나사렛 예수* (대한기독교서회 1973)

8) J. Robinson은 *The New Quest of Historical Jesus* (1961)

초판에서 post-Bultmanian들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예수연구의 진행 과정을 기술한 책으로는 H. Ristow와 K. Mathiae의 *Der historische Jesus und der kerygmatic Christus* (1961)로서 12개국에 속한 48명의 학자들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또 H. K. McArthur, *In search of the Historical Jesus* (1969)

H. Zahrnt, *The Historical Jesus* (1963)

H. Anderson, *Jesus and Christian Origins* (1964)

J. Jeremias, *The problem of the Historical Jesus* (1964)

등은 이 문제에 관한 저서들이다.

의 관심이 역사적 예수 문제에서 初代 基督教 思想史에 관한 문제로 옮겨진 것을 보여준다⁹⁾.

복음서 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편집사 비판(Redaction Criticism, Redaktionsgeschichte)에 의한 연구가 가장 주목할만 하다고 할 것이다.

복음서에 대해서 처음으로 편집사적 비판이 시도된 것으로는 1956년에 나온 W. 막센(W. Marxsen)의 *Der Evangelist Markus* 를 들 수 있다¹⁰⁾.

편집사 비판은 문학비판과 양식비판에 이어 제 2차 대전후에 대두하여 활발히 연구 적용되는 비판학 이다. 이 연구가 시도되기 전에는 복음서 저자가 단지 전승자로 수집가로서 평가를 받았으나 이 연구의 결과는 그들의 신학성을 인정하게 했고 공관복음서의 각 저자가 각자의 독특한 신학적 입장에서 그들의 복음서를 편집했다고 주장하게 됐다. 이러한 획기적인 결론을 가져온 연구로는 막센 이외에도 로빈슨(Robinson)¹¹⁾ 콘첼만(H. Conzelmann)¹²⁾ 그리고 보른캄(Börnckamm)¹³⁾을 들 수 있다. 한편 누가복음 연구에 있어서는 H. 콘첼만이나 E. 헨켄(E. Hänenchen) 등의 연구가 여전히 진보적 신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¹⁴⁾ 누가복음과 관련된 문제는 차항에서 취급될 것이다.

2. 현대의 누가연구

현대 신약학계의 동향은 최초의 '초기공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논구되고 있는 누가의 신학에 집중되어 있다¹⁵⁾.

9) 이러한 현상이 그의 저서 *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 (London: SCM press, 1969)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논문에 나타나 있다.

"The Beginning of Christian Theology (pp.82~107)

"Paul and Early Catholicism (pp.236~251)

10) 영역본은 *Mark, the Evangelist* (Nashville; Abingdon press, 1969)

11) James M. Robinson, *The Problem of History in Mark* (London; Naperville, 1957)

12) Hans Conzelmann, *The Theology of St. Luke* (London, New York, 1960, German origin; Die Mitte der Zeit)

13) Gunther Bornkamm, "Überlieferung und Auslegung im Matthäusevangelium" co-ed. by G. Barth and H. J. Held, 1960.

14) Paul Schubert Festschrift, *Studies in Luke-Acts* ed. by L. E. Keck and J. L. Martyn,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15) *Studies in Luke-Acts*, 1966., p. 16.

20세기 초엽의 신약신학의 연구 경향은 주로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바울과 역사적 예수와의 관계, 헬라 종교 및 그 문화와의 관계, 유대교와 바울, 바울의 신비주의(ἐν Χριστῷ 문제),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교의 생활과 사상에 공헌한 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등의 바울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R. 블트만의 요한복음 주석이 나오고 호스킨(Hoskin)과 님드(C. H. Dadd), 라이프푸트(Lightfoot) 등의 요한복음 연구가 각광을 받자 자유주의 신약학도들의 관심은 요한문서에 기울어졌다.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경에는 死海寫本과 노스틱 문서들이 발굴됨으로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초대교회의 형성 및 요한문서들과 사도 행전과의 관계에서 연구되었다. 1950년대에 와서는 공관복음의 傳承史的 연구 및 양식비평, 편집비평등의 연구가 활발했다.

그러던 것이 1950년대 후반부터는 신약연구가 새로이 "누가-행전"(Luke-Acts)에로, 즉 누가신학 에로 그 관심을 집중했다.

이와같은 전환점을 이루어 놓은 대표적 연구는 H. 콘첼만의 *시간의 중간* (Die Mitte der Zeit-studien zur Theologie des Lukas, 1954)¹⁶⁾과 헨켄의 *사도사* (Die Apostelgeschichte 1957)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1960년에 와서 E. 케제만의 *Exegetische versuche und Besinnungen* (Göttingen, 1960)이 출판됨으로서 신약신학에서 누가문제는 각광을 받게 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학계의 열띤 논쟁적인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이 던진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역사가로서만 인정됐던 누가의 편집사 연구 이후로 새로이 신학자로 인정 받게하는 학문적 노력이었다. 그래서 결국 누가의 기록들은 오늘날의 신약 신학의 돌풍같은 중심 과제가 된 것이다¹⁸⁾. 누가의 기록들에 대한 연구에서 과제가 된 주제들은

16) Tübingen, 1954, 영역본을 *The Theology of St. Luke* (1960)이다.

17) E. Haenchen *Die Apostelgeschichte*, (Kritisch-exegetischer Kommentar)는 마이어(Meyer) 총서의 제 10판으로 출판되었다.

18) W. C. van Unnik "Luke-Acts, A Storm center in contemporary scholarship" in L. E. Keck and Martyn (ed), *Studies in Luke-Acts* (Nashville, 1968), pp. 19-22.

예수의 사역과 가르침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의 말씀의 선포와 생활을 재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가 발전했는가?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바울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누가 자신의 신앙이해는 어떠했으며 초대교회의 다른 성경 기자들과의 비교에서 어떤 장이한 이해가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들이며 보다 더 큰 중심적 문제는 누가의 역사적 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곧 누가는 초대 기독교 전통(early tradition)에 대한 신실한 보고자(reporter)로서 역사가인가, 아니면 기독교 기원에 관한 사건을 '초기공교회' 사상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그의 신학으로 해석한 신학자인가 하는 문제이다¹⁹⁾.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신약학자들 뿐만 아니라 敎會史家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누가 연구는 기독교 기원에 관한 질문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누가의 2부작인 누가-행전(Luke-Acts)에 대한 최근의 수많은 학문적 연구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²⁰⁾. 유니크(W. C. Unnik)의 말을 빌려 본다면

“무엇보다도 누가는 과거의 기록을 남겨 주고자 했던 역사가가 아니다. 역사 기록의 방법에 의하여 그 당시 교회가 직면해 있던 여러 문제들과 위험들에 대처하도록 원했던 신학자였다.

누가를 신학자로 인식한 이 발견은 누가 신학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해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 내려 질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급세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연구중 가장 위대한 소득이다²¹⁾.

19) L. Howard Marshall, *Luke: Historian and Theologian* (Grand Rapids; Zondervan, 1970), p. 13.

20) 오늘의 누가연구에 관한 자료로는 E. Grasser, "Die Apostelgeschichte in der Forschung der Gegenwart", in *Theologische Rundschau* n. f. 26, 1960, pp. 93-167; C. S. C. Williams, "Luke-Acts in Recent study", in *The Expositor* T73, 1961-62 pp. 133-136; C. K. Barrett, *Luke, the Historian in Recent Study*, 1961;

D. Guthrie, "Recent Literature on the Acts of the Apostles", in R. P. Martin(ed), *Vox Evangelica*, 1963 edition, pp. 33-49; J. Dupont *Etudes sur les Actes des Apotres*, Paris, 1967; I. H. Marshall, "Recent study of the Gospel according Luke" to St. *The Expositor* T80 198-69, pp. 4-8; Ibid., "Recent study of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Expositor*, T80, 1968-1960, pp. 292-296 등을 참고할 것.

21) W. C. Unnik, op. cit., pp. 23-24.

하여 오늘날의 누가 연구의 성과를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의 누가 연구는 「누가-행전」의 편집자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누가의 신학 일반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데 그 목적은 누가의 중심되는 신학적 관심(the central theological concern of Luke)을 발견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진보적 신학자들의 누가연구의 결과는 '신학자로서 누가'(Luke as a theologian)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인 추세는 누가의 신학적인 자의식(theological self-consciousness)과 특성들(idiosyncrasies)을 탐색하는데 집중되고 있다²²⁾.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강조점은 이와는 정반대로 누가의 중요한 의미는 사도적 기독교의 역사가로서 기독교 기원에 대한 사실적 정보의 제공자로서 큰 가치를 두었었다. 그래서 윌리엄 램제이(William Ramsay, 1851-1939)는 "누가는 일급의 역사가 이다"²³⁾고 했던 것이다. 하워드 마샬(Howard Marshall)은 "역사가 혹은 신학자 양자중 어느 견해를 인정하든간에 어느 한 면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누가를 단순히 역사가로만 보는 것도 부당하며, 전적으로 신학자로만 보는 것도 일면적이다"²⁴⁾고 비판하고 누가연구에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²⁵⁾ 누가는 역사가인 동시에 신학자이므로 누가를 전도자(evangelist)로 부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²⁶⁾.

그러나 케제만은 "우리가 누가를 일차적으로 신학자로 이해할 때 우리는 동시에 그를 역사가로 이해할 수 있다"²⁷⁾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견해는 누가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보고자일 뿐만 아니라 해석자이며, 당시의 상황을 재해석하여 신학적으로 역사화 했다고 하는 새로운 누가상을 확

22) I. Howard Marshall, op. cit. p. 18.

23) W. M. Ramsay, *The Bearing of Recent Discovery on the Trustworthiness of the New Testament*, 1915, p. 222.

24) I. Howard Marshall, op. cit.; p. 18.

25) Ibid.

26) Ibid.

27) E. Kasemann, *Essays on New Testaments, Themes*, 1964, p. 148.

이논문은 원대독문 Exegetische versuche und Besinnungen (Göttingen, 1960)을 영역한 것이다.

립한 것이다.

이러한 누가 연구의 새로운 시작은 필립 빌하우어(Philip Vielhauer)의 논문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주의에 관하여"(On the Paulinism of Acts)²⁸⁾라는 글이 나타난 후 열기를 띄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H. 콘첼만의 시간의 중간 *Die Mitte der Zeit*²⁹⁾의 출판은 이 열기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누가 연구에 대한 논쟁의 중심은 소위 말하는 '초기 공교회'에 관한 문제다.

II. 누가와 초기 공교회(Early Catholicism)의 문제

1. 누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

신약학계에서는 누가에 대한 상이한 세가지 형태의 이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앞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누가는 역사가로 이해되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생활과 신앙형태를 성실히 기록해 주는 역사가로 이해되었다. 많은 저술가들은 누가가 4명의 복음서 기자 중에 예수의 역사를 가장 잘 기술했다고 말한다.

이런 견해의 대표자는 W. 램제이(William Ramsay, 1851~1939)인데 그는 한때 스코틀랜드의 아버딘 대학교(Aberdin Univ)의 인문학 교수였으며 그의 오랜 누가 연구 결론에서 "누가는 일금의 역사가"라고 했던 것이다³⁰⁾. 또한 뉴질랜드의 고전학자인 E. M. 블레이크 록(E. M. Blaik-

28) "Zum 'Paulinismus' der Apostelgeschichte", in *Evangelische Theologie*, X (1950-51), pp. 1-15.

이 논문의 영역본은 Leander E. Keck와 J. Louis Martyn이 공동편집한 *Studies in Luke-Acts* (Nashville and New York: Abingdon Press, 1969) pp. 35~50에 수록되어 있다.

29) Tübingen; J. C. B. Mohr, 1953, 2nd. 1957.

영역본은 *The theology of St. Luke* (London: Faber, 1960)

30) W. M. Ramsay, *The Bearing of Recent Discovery on the Trustworthiness of the New Testament* (London, 1915), p. 222.

lock)은 사도행전 주석(*Tyndale Commentary on Acts*)에서 "역사가로서의 누가"를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일차적으로 역사적인 문서이며, 신빙할 만한 것으로 인정한다³¹⁾고 했다.

둘째로 헤겔의 철학적 영향하에 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와는 반대로 누가를 이해했다. 이들은 정확한 탐색자이며 조심스러운 역사가로서의 누가가 아니라, 누가를 소설가로 보았다. 19세기의 비평학파인 튜빙겐 학파(Tübingen School)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헤겔 철학의 용어를 차용하여 정(thesis), 반(anti-thesis), 합(synthesis)으로 설명했고 유대적 기독교, 바울적 기독교, 그리고 양자를 화해하는 합(合)의 형태로서 공교회(Catholic Church)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누가상은 결코 진실한 역사가가 아니다.

누가에 대한 세번째 견해는 현대 신약연구의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는데 누가는 신약성서의 창조적 신학자 가운데 하나로서 그는 복음서를 가위질과 풀질로 편집한 편집자(자르비판)로서 혹은 구전(口傳)의 단순한 수집가(양식비판)로서 간주한 옛 견해에 대한 반동으로 누가는 역사가가 아니라 독자적인 신학자로 보는 견해다. 누가를 역사가로 본 것은 19세기의 견해이며, 이제는 누가는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개조하고 재구성한 신학자라는 견해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논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누가 이해가 대두되었다. 이 새로운 견해는 현대의 진보적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데 누가는 '초기 공교회' 신학의 대표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누가는 복음서 기자로서의 위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재림의 지연으로 생겨난 원시 기독교단의 당면한 문제를 교회의 제도화 속에 흡수시켰다는 것이다. 누가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편집사 비판(Redaktionsgeschichte)에 의해 이루어졌다.

편집사 비판은 양식사 비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양식사 비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개한다. 양식사 비판이 기존의 공판복음서 배후에 소급하여 구전 단계를 조사한다면, 편집사 비판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그대

31) E. M. Blaiklock,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1959), p. 9.

로의 복음서들과 그들의 역사적 배경 및 신학적 증언 등에 관심하고 기자들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둔다. 편집사 비판은 복음서 기자들이 보도된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 했으며 또 기술 했는가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전승자료의 수집, 배열, 편집,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저자의 신학적 동기를 파악하므로써 복음서 기자들을 단순한 편집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자들을 창조적인 신학자로 이해한다. 어떻게 이들의 연구는 누가는 단순한 역사가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전통적인 자료를 재조정하여 사도들과 기독교의 기원과 확장에 관해 기록하므로써 예수님의 종말론적 메시지를 역사화 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그의 2부작 누가-행전을 기록할 때 '재림의 지연'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착잡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누가는 '초기 공교회' 사상의 대표자로 이해된 것이다.

2. '초기 공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초기 공교회'(Early Catholicism 독일어로는 Fruhkatholizismus)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누가복음과 관련 하여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가 누구 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 용어는 한사람 이상의 학자가 동시에 사용했는 듯 하다³²⁾. 이 용어의 창어와 신약신학에의 적용에 상이한 견해가 있지만 통상 19C의 F.C. 바우어(Ferdinand Christian Baur, 1792-1860) 때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³³⁾. 1950년대 빌하우어(Vielhauer)에 와서 이 용어가 다시 채용된 후 특별한ニュ앙스를 지니게 되었는데, 빌하우어의 논문 "Zum 'Paulinismus' der Apostelgeschichte"가 출판된 이후 이 용어는

32) 케제만은 누가신학에 관련하여 1949년 공적으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f. *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 London, 1969, p. 236 N.1) W.G. Kümmel도 그렇게 보고 있다. (*Das Neue Testament in 20. Jahrhundert*, Stuttgart; 1970, p. 82)

33) Ralph P. Martin, "Early Catholicism and 2 peter-Jude" in *New Testament Foundations* Vol. II (WM. B. Eerdmans Pub. Co, 1978) p. 380;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xxxI (1969) p. 213.

일반화되었다³⁴⁾. 그러나 노이펠트(K. H. Neufeld)는 이 용어가 하이트뮐러(W. Heitmüller)나 트릴취(E. Troeltsch)에서 부터 처음 사용됐다고 주장한다³⁵⁾.

E. 케제만은 근년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1949)³⁶⁾ 최근 20년 동안 신약신학자들과 초대교회사가들 사이에 많이 사용 됐으며 특별히 누가의 기록들에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면 '초기 공교회'란 무엇인가?

E. 케제만은 "Early Catholicism"이란 '초기 기독교'(earliest christianity)에서 소위 말하는 '고대교회'(ancient church)에로의 변천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파루시아(Parusia)에 대한 기대의 좌절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³⁷⁾ 그래서 모든 논거의 중심은 파루시아의 지연에 두고 있다. 즉 케제만은 임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대망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회라는 次終末論의인 지상의 교회가 들어 섰다는 것이다. '초기 공교회'에 대한 이러한 정의에 대부분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동의 하고 있으나, 이 용어의 분명한 정의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³⁸⁾ 사실이다. J. H. 엘리오트(J. H. Elliott) 등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에 대한 대망의 지연은 보다 더 많은 특징적인 변이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으며, 엘리오트는 변화의 양상을 다음과 같은 것

34) 이 논문은 *Evangelische* 10 (1950-51) pp. 1-15에 실려있으며, 그의 *Aufsätze zum Neuen Testament* (München, 1965), 속에 재수록되었다. 이 논문의 영역본은 *Studies in Luke-Acts*, ed. L. E. Keck and J. L. Martyn (Nashville, 1966), pp. 35-50에 수록되었다.

35) K. M. Neufeld "Fruhkatholizismus"-Idee und Begriff" in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94 (1972), pp. 1-28.

36) E. Käsemann, "Paul and Early catholicism," in *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 p. 236,

See also I. H. Marshall, "Early Catholicism in the New Testament", in *New Dimensions in New Testament Study*, edd. Longenecker and Tenney, p. 221 n 17; Philip Vielhauer, "On the Paulinism of Acts", in *Studies in Luke-Acts*; E. Käsemann, "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 pp. 1-22 참고.

37) E. Käsemann, *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 (London, SCM, 1969), p. 237.

38) Leon Morris, "Luke and Early catholicism", in *Studying the New Testament Today* Vol. 1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6) p. 60.

으로 보고 있다³⁹⁾.

카리스마적인 목회는 사라지고 그대신 교편적인 교회의 조직(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ccording to hierachical)이 이뤄지고, 감독권의 발전과 확립, 선포의 객관화(an objectification of the proclamation), 엄격한 신앙 규율의 강조, 이단교설에 반대하여 정통성(orthodoxy)의 강조와 진전한 교리 강조, 신앙의 도덕주의화(moralization of the faith), 신앙이해에 있어서는 주관적이기 보다는 객관적이며, 동적(dynamic)이기 보다는 정적(Static)인 변이(fides quae creditur in contrast to fides qua creditur), 사도적 계승과 권위의 부여, 평신도와 교직자의 구분, 성경해석권의 확립, 성례전적 예배의식(sacramentalism)의 발흥, 자연신학("Natural theology")의 형성, 교회일치와 연합에의 관심⁴⁰⁾

등의 변화를 들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는 결국 교회의 제도화(institutionalism)를 초래했고 공교회(Catholic Church)로서의 과정을 밝게 했다는 것이다.

하워드 마샬은 이 문제에 대한 케제만, 룬첼만, 로쉬(Lohse), 베그나스트(Wegenast) 등의 연구의 공헌을 지적한후 결론적으로 정의하기를 '초기공교회'란 초대교회의 목시적 기대가 약화되고 제도적인 기구로서의 교회가 조직화된 목회와 성례 전을 가지고 구원의 방도로서 말씀을 대치하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한다. (Early catholicism' refers to a situation in which Prmitive apocalyptic expection has been weakened, and the Church as an institution with an organized ministry and Sacraments has begun to replace the word as the means of Salvation)⁴¹⁾고 정의 한다.

39) Leon Morris, *ibid*, p.61에서 증인

40) J.H. Elliott, "A Catholic Gospel; Reflections on 'Early Catholicism' in the New Testament," in *Catholic Biblical Quartely*, 31 (1969) p.214.

41) I Howard Marshall, *op. cit.*, p.223.

c.f. E. Lohse, "Apokalyptik und Christologie" in *Zeitschrift fu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62(1971), pp.48~67.

3. 누가와 '초기공교회'의 문제

누가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논쟁의 초점은 소위 말하는 '초기공교회'에 관한 논쟁이다. 즉 누가의 기록들은 초기 카톨릭文書(early Catholic documents)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누가의 저작은 "초기공교회"의 대표적인 문서로 취급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그리고 목회서신, 베드로후서, 유다서등도 '초기공교회' 문서로 보고 있다⁴²⁾. 이들 서신들은 원시 기독교(Primitive christianity)로 부터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의 기록들은 구속사를 향해 정향(定向)된 문서로 보는 견해로서 빌하우어의 논문 "사도행전의 바울주의에 관하여"(Zum 'Paulinismus' der Apostelgeschichte)에서와 케제만의 최근 논문인 "바울과 '초기공교회'(Paulus und der Fruhkatholizismus)이후로 후기 불트만 학파는 한편에는 바울을 두고, 다른 한편에는 누가와 그밖의 초기 공교회 문헌을 두고 양자를 배결시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원시기독교의 대표적인 증언자로 나타내고 누가와 그밖의 '초기공교회' 문서는 바울의 원시 기독교로 부터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빌하우어는 그의 논문 "사도행전의 바울주의에 관하여"에서 누가의 신학은 바울의 신학과는 상당히 다른 신학을 제시 한다고 주장 한다⁴³⁾.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누가는 원시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형성되어가는 '초기공교회'(early catholic church)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⁴⁾고 한다. 그래서 빌하우어는 누가가 구속사에 관한 '초기카톨릭적' 관념 형성의 장본인 이었다는 것이다. 구속사는 바울에게는 생소한 요소였지만 누가는 구속사를 택하는 대신 예수의 종말론의 본질을 포기 했다는 것이다. 임박한 종말이 이루어 지지 않은채 남아 있는 종말 기대라는 결핍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이다.

42) Leon Morris, *op. cit.*, p.61.

43) I. Howard Marshall, "Early Catholicism in New Testament," in *New Dimensions in New Testament Study*, (Zondervan Pub. Co. 1974), p.221.

44) Vielhauer, *Aufsatze Zum NT.*, pp.26f.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초기공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는 어떤 것들인가? 콘첼만은 누가복음의 특수한 언급이나 혹은 누가의 생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전 시대에 있었던 종말론적 강조를 부드럽게 하거나 제거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콘첼만은 말하기를 마가복음 9장 1절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있는 사람 중에 죽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자들도 있느니라"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나타나리라 고 기대하였음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나라가 곧 나타나지 아니 하였으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념은 무한히 계속되는 역사세계 속에 중성화 되어 버렸다고 한다. 콘첼만은 누가복음 9장 27절은 하나님나라 관념에 대한 이러한 재평가를 반영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또 마가 1장 15절 "배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가 누가복음에서 생략된 것과, 누가 3장 1절 이하의 연대기표가 그리스도 사건을 세상 역사와 세상역사의 맥락속에 놓은 것은 종말론을 구속사속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콘첼만은 누가를 기독교 구속사의 창시자로 보고 있다*.

또 마가의 소복시록(13장)을 누가 21장 특히 20절에서 취급하는 것은 파루시아는 임박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은 예수와 초대교회에 있어서처럼 결정적으로 현재를 결정하고 지배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 곧 종말신앙은 교의학의 종장(終章)으로 그 위치를 이관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누가의 근본적인 신학개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누가가 '누가-행전'을 기록 할 때 재림의 지연문제에 인하여

* 콘첼만은 구속사를 3시대로 구분했는데 즉 ① 그리스도이전의 구약시대 ② 그리스도사건의 시대 ③ 교회시대등이다. 근거에 와서 이 방법의 연구로 주목을 끌고있는 H. Flender도 그의저서 *St. Luke, Theologian of Redemptive History* (London:SPCK, 1967)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지지 하고 있다.

콘첼만이 누가를 구속사의 창시자로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O.Cullmann의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만은 누가가 구속사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도 그것이 곧 그가 구속사의 창시자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O.Cullmann, *Salvation in History*, 1967, p.46).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요구 됐고, 초대교회의 임박한 재림기대를 먼 역사의 세계속으로 歷史化 시키는 조정이 불가피 했다는 것이다.

"초기공교회"연구에 가장 크게 공헌한 학자인 E. 케제만은 초기 기독교에서 임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의 좌절로 말미암은 변화는 초대교회에로의 이전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누가의 글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⁴⁵⁾

또한 케제만은 "누가는 디벨리우스가 생각했던 것 처럼 바울의 동료나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최초의 '초기공교회'발생기의 대표적 인물이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포함한 기독교의 역사를 계속 역사로 나타내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원시 기독교에서 얼마나 멀리 이탈했는가를 보여 준다"고 해석하고⁴⁶⁾ 한편 이 변화는 신약 설교의 동력이던 원시 기독교 종말론(Primitive christian eschatology)이 퇴조함으로써만 가능했다고 주장한다⁴⁷⁾. 그래서 누가는 그의 독특한 주제인 '그리스도의 때'(the time of christ)를 시간의 중간기(the mid-point of time)로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에게서 종말론은 사라지고 구원사(Salvation History)로 대체 됐다는 것이다⁴⁸⁾. 그러므로 선교(mission)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 선포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간주 되지 않고 구원을 위한 세계 규모의 기독교 조직(World-wide christian organization)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말씀(Word)은 더 이상 교회의 유일한 표준이 아니었고 교회가 말씀을 대신하여 합법화되었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는 선포의 권한이 위임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는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것은 종말의 지연을 역사화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는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⁴⁹⁾로서 그의 신학은 원시 기독교(Primitive Christianity)의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이며, '초기공교회'의 근거가 되고 한 요소로 특정 지어진다

45) E. Käsemann, *op. cit.*, p.237.

46) *Ibid.*, pp.21f

47) *Ibid.*

48) I. Howard Marshall, *op. cit.*, p.221.

49) I. Howard Marshall, *op. cit.*, p.222.

한다⁵⁰⁾.

이상의 고찰에서 보듯이 현대 진보적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누가는 독자적인 신학자로 부각되고 있으며 속사도 시대(sub-Apostolic age)의 신학자로 부각되어 제 2세기 공교회로 구체화되는 발전의 입구에서 있는 '초기공교회' 신학의 대표자라는 것이다.

Ⅲ. '초기공교회'의 신학적 문제

1. '초기공교회'의 문제의 소재

누가와 '초기 공교회'와의 관계에서 논구되는 문제의 발단은 초대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기대의 좌절, 곧 파루시아의 지연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당시 교회에 지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 결과들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국의 역사화의 문제(Historisierung), 종말론의 역사화내지 중성화의 문제, 구속사 신학의 발흥, 교회의 제도화 그리고 정통성의 확립등의 현상이다.

이상과 같은 '초기공교회'화의 제 현상들에 대한 신학적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 본장에서 취급될 것이다.

초대 교회의 편만했던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좌절—연기되자 영원한 시간 세계속에 예수의 종말론적인 선포를 역사화 시키고 종말론을 구속사 속에 중성화(Neutralisierung)⁵¹⁾ 시킴으로서 구속사 신학을 전개했다고 한다. 종말론의 문제가 생긴것은 기다리던 세계의 종말이 이르지 않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부터 나타나지도 않았고 역사는 계속하며, 그리고 종말론적인 공동체는 그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50) E. Käsemann, *New Testament Questions*, pp.21f; 또한 pp.236—51참조. c.f. idem, *Essays on New Testament Themes*, trans W.J. Montague (London; 1964), pp.28f., 136—48.

51) 종말론의 중성화란 임박한 세계의 종말에 대한 기대를 전지해보려는 시도로 초대교회가 종말신앙을 예전화(Sacramentalize)한 것을 말한다. 더 자세한 설명은 R. Bultmann(서남동역)역사와 종말론 pp.51—68참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의 새로운 형태, 곧 지상의 종말론적 기구로서 교회가 제도화되어 갔다는 것이 케제만과 콘첼만 등의 중심 논거인 것은 이미 살펴본 바다.

결국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임박하리라고 기대 했던 파루시아의 지연(the delay of Parousia)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의 '초기공교회'를 주창하는 학자들은 누가는 종말론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전체 위에서 서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누가의 2부작 누가—행전은 종말론의 퇴조로 빚어진 역사적 형편에서 씌여 졌다고 보는 가설 때문이다.

기다리던 종말은 오지 않고 종말 기대는 무한한 시간속에 역사화 되었기 때문에 누가의 저작에는 이미 종말론은 제거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초기공교회'의 신학적 문제에 관해 몇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상론해보자.

2. 교회의 제도화

'초기공교회'에 관한 논쟁의 가장 큰 강조점은 종말론에 집중되어 있다. 케제만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파루시아의 기대의 좌절에서 '초기공교회'의 성격을 말하는데 임박한 재림에 대한 계속적인 기대속에 살던 그들은 제도(institution)가 필요 없었으며 교회사에 관심이 없었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곧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케제만은 "임박한 세계의 종말을 기대한다면 교회사를 쓰지 않을 것이다"⁵²⁾고 말한다. 그런데 케제만과 그의 동료들은 누가—행전 끝 누가의 기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⁵³⁾.

이것은 좌절된 종말에 대한 해명 때문에 누가—행전이 기록됐음을 시사

52) E. Käsemann, *Essays on New Testament Themes* (London; SCM 1963) p.28.

53) Leon Morris, "Luke and Early Catholicism", in *Studying the New Testament Toda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6), p.64.

해 주며 종말의 지연은 시간세계속에 계속되는 교회시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화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케제만은 누가의 기록에서 교회제도주의(institutionalism)를 받아 들이는 준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의 앞에는 종말이 오기 까지 긴 시간이 있다는 확신을 정착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⁵⁴⁾ 여기서 부터 교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케제만은 “교회의 본질과 질서” 문제에 있어서 누가의 “초기 공교회”를 바울의 “진정한 원시 기독교”(authentic primitive Christianity)와 대립시키고 누가는 이미 바울의 그것을 떠나 제도화된 교회에 속했다고 보고 있다⁵⁵⁾. 한걸음 더 나가서 케제만은 누가를 “초기공교회”의 출현의 표식이 되는 전통과 사도적 계승을 최초로 도입한 자로 보고 있다⁵⁶⁾.

그러면 ‘초기 공교회’를 시사해 주는 교회의 제도화에 대한 뚜렷한 현상들은 어떤 것들인가?

㉔ 교회의 조직화가 이뤄지고 사목(ministry)이 발전되고 구조화되었다. 영적이며 카리스마적 직분은 교권적이고 단일 감독적인 제도(hierarchical and monarchical institution)로 대치 되었다.

㉕ 신앙 이해에 있어서 복음의 요구에 대한 외부적인 응답에서 종교적 신앙의 조문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됐으며, “믿음”(πίστις)이라는 용어는 종말론적이고, 실존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도덕적 생활의 덕성중의 하나로 이해 되었다. (예, 벵후 1⁵⁻⁷, 유다 3, 20)⁵⁷⁾

㉖ 정경의 범위는 필연적으로 후기 교회의 사도적 문서 편찬으로 정해졌으며 Sola Scriptura라는 정경의 권위의 공적 원리는 영지주의(Gnosticism)⁵⁸⁾와 몬타누스이단(montanism)⁵⁹⁾을 막기 위하여 설정되었다⁶⁰⁾.

54) Leon Morris, *Ibid.*, p. 64.

55) *Essays on the New Testament Themes*, (London, SCM., 1964) p. 92.

56) *Ibid.*, p. 91.

57) H. Conzelmann, *An outline of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1969), pp. 289 ff. 유다서 3절 20절에 대해서는 K.H. Schelkle의 “Spatapostolische Briefe als frühkatholisches Zeugnis”, in *Neutestamentliche Aufsätze; Festschrift J. Schmid* (1963). p. 226.을 보라.

58) 이들은 사도들로 부터 저들만이 크비의 신앙전통(Secret tradition)을 전수받았다고 함.

㉗ 복음의 성격이 여러 양상으로 변모되었는데 기독교 교리는 객관화되었고 교회는 정통을 주장하게 됐으며 이것이 초기의 은사적 성격을 대치했다. 또 복음은 복종해야 할 새율법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교직자와 평신도간의 엄격한 구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며(Clement제 1서신에서 보는 바처럼) 성례전적 의식(Sacramentalism)이 나타나고 (Ignatius에 의해 증명된다) 교회의 일치성이 고양되었다⁶¹⁾. 그러면 무엇이 신약교회의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여 교회의 제도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점에 대해서 E. 케제만은 한마디로 파루시아의 지연(the defement of the parousia)라고 말한다⁶²⁾.

그토록 고대하던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우주적 종말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두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로는 지상에서의 시간의 무한한 계속을 전망하는 교회사의 시작이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제도화를 촉진했으며 또 한편 복음의 실존적 차원의 상실을 의미하며 “오직 성경으로만”(Sola Scriptura)라는 “형상 원리”(formal principle)는 의신주의(justification by faith)의 “진료적 원리”(material principle)를 대신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by grace alone, by faith alone)하는 케제만의 논거는 “죄인의 의인화”(justification of sinners) 교훈속에 함축되었고 신약에서의 카톨릭적 요소를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적인 본질(evangelical substance)은 더 분명히 부각 되었다⁶³⁾. 이런 점에서 “초기공교회”는 사도적 신앙으로 부터

59) 이들은 직접적인 신적인 조명, 성령의 은사를 통한 계시의 계속성을 주장하였다.

60) C.F., E. Käsemann, “The New Testament Canon and the unity of the church,” in *Essays on N.T. Themes*, p. 103.

61) Ralph p. Martin, “Early Catholicism and 2 peter-Jude”, in *New Testament Foundation*, II (WM B. Eerdmans pub co. 1978) p. 381.

62) E. Käsemann, “Paul and Early Catholicism”, in *N.T. Questions of Today*, pp. 236 f. 이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것은 Leon Morris, “Luke and Early catholicism”, in *Studying the N.T. Today*, Vol. I. (presby. and Reformed pub. co., 1976) pp. 60-75. Leon Morris의 입장은 본논문 제 4장에서 취급됨.

63) Ralph p. Martin, *op. cit.*, p. 382.

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종말론의 역사화 문제

누가가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기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판명되었다고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막 9:1)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도 전부 죽었다. 그런데도 세상은 매일 그대로 계속되고 있으며 종말이 도래하지 않자 종말론은 歷史化 되어야 했으며 교회는 계속 지속되는 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며 적응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누가의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었다는 것이 1950년대 이후 신약학자들의 해석이다.

즉 누가는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뱃세지를 역사화 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가 죽은 후에도 교회에 의해 계속된다는 그의 신학적 입장과 해석에 의해서, 그리고 역사를 인정하고 바로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되고 성취되어 간다는 “구원사”라는 개념으로 그는 그의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종말론의 증성화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런 관심과 의도로 인하여 사도행전에서는 “마지막 날들”(the last days)이 보다 긴시대(a longer epoch)로 나타나고 있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 자체가 마지막의 시작이 아니라 “보다 긴 시대”의 시작 즉 교회시대의 시작으로 이해되고 있다⁶⁴⁾고 한다. 성령은 종말론적 은사로서가 아니라 궁극적 구원의 소유를 위한 보증과 담보로 즉 代理로 생각되었다⁶⁵⁾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가에서 종말의 선구자로 등장한 세례요한⁶⁶⁾을 누가는 더 이상 종말론적 선구자로서가 아니라 예언자중 마지막 인물로 그렸다고 콘첼만은 주장한다.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심인 종말론을 마지막 일들에

64) H. Conzelmann, *The Theology of St. Luke*, 1960, pp.40-43 참조.

65) Idem

66) W. Marxen, *Mark the Evangelist*, (Abingdon Press, 1969), pp.40-43.

67) H. Conzelmann, *op. cit.* p.101

관한 항목으로 위치를 옮겼으며⁶⁸⁾ 그렇게 함으로서 누가는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자의 부활, 임박한 종말 기백의 초대교회와도 구분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빌하우어는 누가는 이미 역사적으로 초기 교회의 사상적 문맥에 있지 않고 오히려 초기 카톨릭교회의 발단기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신학적 관점과 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후기 바울적(Post-Pauline)이라고 한다. 누가에게 있어서 긴박한 종말대망은 사라지고 파루시아의 지연은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는 초대교회의 목시적 종말론과 바울의 기독교적 실존적 종말론을 “약속과 성취”라는 구속사적 문맥으로 배치 시키고 종말을 역사과정속에 흡수 시켰다고 한다. 콘첼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본에 흐르는 무드는 “종말론의 역사화”라고 한다.

4. 구속사의 문제

케제만에게 있어서 ‘초기공교회’란 바울 후기 시대(the post-Pauline period)의 신학이다. 초기교회를 특징지어 주던 종말론은 퇴조하고 그 대신 구원사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역사는 구원의 계획을 펴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간주되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특히 콘첼만에 의해 많이 논구되었다. 콘첼만은 누가의 신학을 구속사(Redemptive History)의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다. 콘첼만은 누가 16장 16절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 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에서 구속사의 3중구조를 발견한다고 보고, 여기에 기초하여 구속사를 3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단계는 이스라엘 시대, 곧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요, 둘째단계는 첫단계의 성취인 예수의 시대이며, 셋째단계는 예수의 승천과 재림사이의 교회사 시대이다.

다시 말하면 누가의 역사 이해는 창조의 알파 포인트와 종말의 오메가 포인트로 한정시킨 직선적인 역사과정으로 보고 이 과정을 3단계로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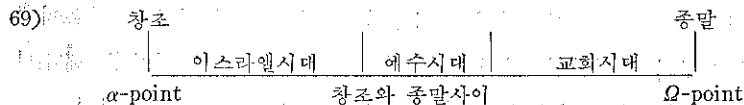
68) Philip Vielhauer, “On the Paulinism of Acts”, *Studies in Luke-Acts* p.45

하고 있다고 콘첸만은 주장하는⁶⁹⁾데 그중 제 1단계가 “이스라엘 시대” 혹은 “율법 시대”로 세례요한이 구시대의 최종인물이라고 하며⁷⁰⁾ 제 2단계가 “예수시대”로서 용서와 사랑과 자유와 기쁨이 삶의 한 복판에 현존한 구원의 때(Heilszeit)이고 좀더 밝혀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현존한 시대라고 본다는 것이다(눅 4: 18, 16; 16 참조) 누가는 이 시기를 자신이 지 있는 때와 엄밀히 구별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보며 이 성취는 곧 신국의 구원이 이 세상 한 복판에 현존하여 그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본다. 제 3단계는 예수의 영이 작용하는 교회의 시대요 악마와 싸워야 하는 전투의 시대요, 또 예수에게서 완성된 구원의 갯세지를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자유와 삶의 기쁨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 만방에 전파해야 할 세계선교의 시대라는 것이다⁷¹⁾. 이 세번째 단계는 예수께서 심판자로서 그리고 구세주로서 재림 때까지 알 수 없는 먼 미래까지 연결되는 공교회(Catholic church)시대를 포함한다⁷²⁾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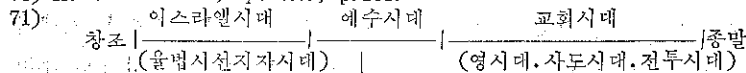
이 모든 구축사의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이 교회시대의 완성은 예수의 재림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와 같은 구축사의 3단계는 각기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도 “약속과 성취”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이 H. 콘첸만의 누가의 구축사관의 구조다. 결국 누가는 원시교회의 종말 대망신앙을 완전히 이완시킴과 동시에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최후의 심판이나 역사의 종말을 구조상 먼 미래에 있는 것으로 본다. 누가



70) H. Conzelmann, *op. cit.*, p.101.



구원의 때 신국이 현 역사속에 실존할 때.

72) I. Howard Marshall, *op. cit.*, p.202.

는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안에서 시작되었고 신국은 예수의 삶과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역사의 한복판에 좌정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래서 누가는 감히 마태 3장 2절이나 4장 17절 같은 “회개하라.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신국이 “가까왔다”(ἤγγικεν) 막 1; 15)는 신국의 임박성 대신 이미 현존한 신국을 “선포하는 일”(κηρυσσῶν)로 대치시켰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4: 18~21)

또 누가는 “신국을 복음화 해야만 한다”(εὐαγγελίζεσθαι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는 특이한 어귀를 구사하여, 앞서 말한 “앵키켄”이란 종말적인 표현형식을 대치시켜 이 종말적인 신국선포 형식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유앙겔리제스다이”라는 어귀는 누가 4장 43절을 비롯하여 9장 2절, 11, 60절, 10장 19절, 16장 16절, 18장 29절, 21장 31절등에 나타나 있다.

어떻든 콘첸만에 의하면 누가—행전의 2부작을 저술했어야만 했던 누가의 역사적 위치는 그가 당면한 문제 곧 종말의 지연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한 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콘첸만의 구축사적 역사이해는 임박한 파루시아의 기대가 좌절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파루시아를 재 해석할 필요에서 시도된 누가의 신학적 해석으로 보고 있다. 구축사는 예수의 시대와 종말 도래 사이에는 긴 역사적 시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예수의 역사가 분명히 과거에 속한다는 것과 종말이전에 오랜 역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한 누가의 통찰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초기공교회’ 형성에 지대한 신학적 의미를 제공했다고 한다.

원시교회의 종말론(primitive eschatology)을 구원사적 도식(a scheme of salvation History)이 대치한 것은 ‘초기공교회’ 형성에 고무적인 역할을 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구축적 정물을 펼쳐가는 긴 역사적 현실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케제만의 기본적인 주장이다⁷³⁾.

오스카 클만은 임박한 복지적 기대를 포함한 원시교회의 종말론을 계승

73) I. Howard Marshall, *op. cit.*, p.226.

한 구원사는 초대교회의 출발 초기에 이미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⁷⁴⁾

Ⅳ. '초기공교회' 비판

1. 파루시아의 대망과 종말의 지연에 관하여

"초기공교회"를 말하는 현대 신학 학자들의 주장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현대 신학사에서 고전이 된 교리사의 저자 하르낙(Adolf von Harnack, 1851—1930)은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화한 결과"로 교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⁷⁵⁾. 즉 그리스도철학의 관념들을 빌어 그것들을 기초로 그리스도교를 재해석 했다는 것이다⁷⁶⁾. 그래서 그는 종말의식의 퇴조는 교리의 기원이 됐다고 보았다.

이것은 또한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에 의해서도 이미 주장되었다. 슈바이처는 신약의 모든 교리를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생긴 위기로까지 소급시켜서 교리를 설명했었고⁷⁷⁾ 그의 철저 종말론도 재림지연의 문제를 역사화 시키는 것이었다. 베르너(M. Werner)는 슈바이처가 제기한 재림지연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고대 교회의 교리사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연구했다. 베르너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교 교리의 성립 <Die Entstehung des Christlichen Dogmas 1941>⁷⁸⁾에서 교리의 기원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기독교의 종말에 대한 처음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그리스도적 사상으로 재해석하여 신앙의 체계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베르너는 증명하려

74) Oscar Cullmann, *Christ and Time*, trans. F.V. Filson (London, 1951)
Idem, *Salvation in History*, trans. S.G. Sowers. (London, 1967.)

75) 에른스트 벨츠, 진화사상과 그리스도교의 희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p. 21 참고

76) Adolf von Harnack, *Dogmengeschichte*; Freiburg, 1888(2nd; ed) p.18. 영문판으로는 *History of Dogma*란 제목으로 1962년 Gloucester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다.

77) Oscar Cullmann, *Salvation in History*(한역본) p.37.

78) Bern-Leipzig, 1941 영역본으로는 *Formation of Christian Dogma; A presentation of the History of the problem* (Boston; Beacon, 1965)가 있다.

했다⁷⁹⁾. 즉 압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위기를 교회는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의 교리체계를 버리고 구원을 재해석함으로써 교회는 지상에 있는 신의 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⁸⁰⁾. 이와같이 베르너는 복음서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 태도를 제거한 결과로서 교리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de-eschatologization 이라는 어색한 용어로 표현한다. 즉 신국에 대한 처음 기대가 포기되고 복음이 그리스도 사상화에 의해 대처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하르낙의 견해나 슈바이처의 견해나 베르너의 주장은 오늘의 '초기 공교회'의 주장과 유사한 결론을 제시한다. 비록 그 근거와 이론에 있어서는 相異 하다고 할찌라도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 변화가 생기고, 원시적 기독교에서 2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공교회에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종말을 재해석 했다는 주장에는 동일하다. 즉 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 종말에 대한 기대가 파루시아의 지연으로 포기 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결론에는 동일한 것이다. 하르낙과 베르너는 이것을 그리스도화의 사상적 변화로 이해한 반면, 슈바이처는 종말론의 재해석을 시도했고, 오늘의 "초기 공교회"신학(early catholicism)에서는 이미 누가가 그의 2부작인 누가-행전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그의 새로운 신학을 가지고 채택했기 때문에 누가의 저작속에 이미 공교회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최초의 신앙체계가 붕괴되고 그 다음시기에 다른 새로운 체계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또 그리스도교가 초기에 압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와 신국이 조속히 오리라는 기대에 완전히 사로 잡혀 있었다는 것도 옳지 않다.

'초기 공교회'는 초대교회가 압박한 재림의 기대속에 살고 있었다는 전

79) 에른스트 벨츠 *op. cit.*, p.30.

80) M. Werner, *Die Entstehung des Christlichen Dogmas* (Bern-Leipzig 1941), p.133.

제에서 출발하였으나 신약의 다양한 개념 가운데서 아무도 초대교회가 제 일 파루시아의 압박한 기대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⁸¹⁾ 또한 종말이 너무 압박하고 너무 확실하여 교회의 조직과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⁸²⁾. 예수의 승천과 재림사이의 중간기에 대한 기대는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전파를 계속한 사실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파루시아가 실제로 압박했고 초대교회가 압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기대속에 살고 있었다면 왜 바울이 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으며 그의 서신 가운데 나타난 선교의 계속성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⁸³⁾

베살로니가서의 여러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바 처럼(대전 4; 11f 대후 3; 6ff) 바울은 파루시아의 압박함을 생각하는 자를 견책하였다. 분명히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승천이후에서 부더 재림사이의 기간인 중간기를 기대했으며 압박한 파루시아에 대한 대망 가운데 산 것은 아니었다⁸⁴⁾. 그러므로 파루시아의 지연은 그 당시 원시 기독교인들에게 보다는 현대 신학자들에게 더 크고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⁵⁾.

그러므로 재림의 지연을 전제로 출발한 이상의 논의는 비판되고 근본적으로 재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로 재림지연으로 생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귀절은 쿨만에 의하면 신약전체에서 두군데 밖에 없다고 한다.⁸⁶⁾ 그것은 베후 3장 3절 이하와 요한복음의 간접적인 기술뿐이라는 것이다. 분명히 예수가 멀지 않은 장래에 재림하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예수의 재림과 교회의 조직화도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신약정경

81) Leon Morris, "Luke and Early Catholicism" in *Studying the New Testament Today*. (Presby. and Reformed pub, Co. 1976) p.65.

82) *Ibid*

83) Leon Morris, *op. cit.*, p.65.

84) *Ibid*

85) c.f. Willian Klassen and Graydon F. Snyder, eds., *Current Issues in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London, 1962), p.198에 보면 종말기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되고 있지 않으며 단지 각주에서 취급될 뿐이다.

86) Oscar Cullman, *op. cit.*, p.265.

에 의하면 파루시아 이전의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화와 제도화된 교회생활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⁸⁷⁾. 즉 종말의 지연으로 교회의 제도화가 이루어 졌다는 가설은 부당하므로 교회의 제도화를 파루시아의 지연으로 생겨난 결과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초기 서신중의 하나이며, 어쩌면 신약 최초의 문헌일지도 모르는 갈라디아서도 신자의 계속적인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베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베전 3; 8-10)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베전 5; 10)고 했다.

바울 또한 "피차 권면하고"라고 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주의 압박한 재림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계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계속성은 종말에 대한 기대보다 더욱 편만하게 나타난다⁸⁸⁾. 그러므로 초대 기독교인들은 압박한 파루시아의 기대속에 살았다는 것과 이 종말의 지연으로 교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초기 공교회'는 그 근거를 상실한다.

2. 누가의 종말론에 대하여

'초기 공교회'에서 종말론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이미 살펴 본 바다.

누가복음의 '초기 공교회'에 대해서 고려할 때 누가는 종말론을 제거하고 신국을 역사화 시켰기 때문에 누가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근거에서 '초기 공교회'는 주장되었다.

87) Leon Morris, *op. cit.*, p.65.

88) I Howard Marshall, *op. cit.*, p.68.

이미 누가에는 종말에 대한 기대는 퇴조하고 초기 카토릭적 양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에 대해 고찰해 보자.

누가는 종말론에 대해서 무관심 했다는 주장은 정당치 못하다⁸⁹⁾. 누가는 종말론에 무관심하기 보다는 당시 예수의 재림 문제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다⁹⁰⁾. 누가는 분명하게 세례요한의 말

“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누가 3:9)

는 심판의 경고를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세례요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와 유사한 기록도 인용하고 있다.

“손에 킶를 들고 자기의 다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썩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누가 3:17)

누가는 또한 70인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누가 10:9)고 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서 어느 동네에 들어 가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 하거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명하였다. (눅 10:11) 또 누가만이 (12:35~40) 종말에 대한 특수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눅 12:40)

이렇게 볼때 누가가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종말론을 제거해 버리고 '초기 공교회' 사상을 폄하했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누가는 종말의 지연에 대처한 신학을 기록한 신학자로 보는 논리는 정당치 못한 것이다⁹¹⁾.

우리는 여기서 누가의 종말론을 지나치게 약화시키는 가설적 주장을 토

89) 케제만은 누가가 기독교역사(누가-행전)을 세속역사(Secular History)로 기록한 시도는 신약실교의 동력이 되는 원시 기독교 종말론이 퇴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 London., 1969. S.C.M 1961. p.21) 누가는 종말론에 무관심했다고 보았다. 논문 제 3장 참고.

90) Leon Morris, *op. cit.*, p. 68.

91) 이상은 Leon Morris 의 “Luke and early Catholicism” 중에서 Lucan Escatology 를 요약정리한 것임.

대로 논의되는 '초기공교회'는 그 이론적 근거를 상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질곡 '초기 공교회'를 주장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두 전제, 곧 초대 기독교인들이 임박한 파루시아의 대망속에 살았다는 것과, 누가복음에는 종말론이 제거되어 있다는 논리는 그 기초를 상실하고 이 가설적 기초위에서 논구된 '초기 공교회'는 비판되어야 하는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누가의 2부작 속에 나타난 소위 '초기 공교회' 사상에 대한 현대주의 신학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해 보았다. 제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파루시아의 대망과 종말론적 대망이 점차 퇴조하고 초기 공교회(Catholic church)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이것들은 파루시아의 지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주장의 배경과 근거로 H. 콘첼만과 E. 케제만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초기 공교회'를 말하는 신학자들의 전제는 초대교회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대망이 편단했다는 점과 고대교회 즉 초기공교회는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종말론의 재 해석이 요구됐다는 두가지 큰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두 전제는 근거없는 것임을 밝히고 케제만과 콘첼만의 주장은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여 신약의 한 요소를 지나치게 획일화하여 구성된 이론임을 지적하였다. 종말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변화했다는 여러가지 현상들 곧 교회가 제도화 되고 증성화 됐으며 누가의 저작에서 종말론이 퇴조한 점 '실국이 역사화된' 점 구속사 신학이 나타난 점 등은 비판의 여지가 많으며, 이런 이론은 예수의 승천과 재림의 중간기를 두지 않고 그 임박성에만 관심을 둔 것임으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몇가지 관점에서 '초기 공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발전 신앙형태의 형성을 단순히 역사내 현상으로 파악하여 과학적 분석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단언하는 방법론은 역사속에 역

사(役事) 하지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만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신학을 창작한 것은 아니므로 원저자를 무시하고 누가에게 절대적 저작성을 두고 논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며 이런 근거에서 시작된 '초기 공교회'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 행 본

- Barrett, C.K., *Luke the Historian in Recent Study*, London: 1961
 Blaiklock, E.M.,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1957
 Cadbury, Henry J., *The Making of Luke-Acts*, London, 1961
 Conzelmann, H., *An outline of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1969
 Conzelmann, H., *The Theology of St. Luke*, London, 1960 (Die Mitte der Zeit)
 Cullmann, O., *Christ and Time*, trans. F.V. Filgon, London, 1957
 Cullmann, O., *Salvation in History*, trans. S.G. Sowers, London, 1967
 Foakes-Jackson & Lake(ed.),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I-V, London, 1979
 Haenchen, E., *The Acts of the Apostles-A Commentary*, London, 1971
 Käsemann, E., *Essays on New Testament Themes*, London, 1964
 Käsemann, E., *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 London, 1969
 Keck, L.E. & Martyn, J.L. (ed.), *Studies in Luke-Acts*, London, 1976
 Klassen, W. & Snyder G.E. (ed.) *Current Issues in New Testaments Interpretation*, London, 1962
 Marshall H., *Luke: Historian and Theologian*, Grand Rapid, 1970
 Neil, S.,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1861-1961*, London, 1966
 Robinson, J., *The New Quest of Historical Jesus* (1961)
 Werner, M., *Die Entstehung des christlichen Dogmas*, Bern-Leipzig, 1941.

2. 단편논문

- Käsemann, E., "On the Subject of Primitive Christian Apocalyptic", in *New Testament Questions of Today*, London, 1969
 Marshall, I.H., "Early Catholicism in the New Testament", in *New Dimensions in New Testament Study*, Grand Rapids, 1974

- Martin R.P., "Early Catholicism and 2 Peter-Jude," in *New Testament Foundations*, II Grand Rapids; 1978
 Morris, L., "Luke and Early Catholicism," in *Studying the New Testament Today I*, Philadelphia, 1976
 Vielhauer, Ph., "On the Paulinism of Acts", in *Studies in Luke-Acts*, London, 1976 ("Zum 'Paulinismus' der Apostelgeschichte", in *Aufsätze Zum Neuen Testament*, München, 1965, pp. 9-22))